

# 삼남, 화물파업 대비 PTA 철도운송

내륙 수요처 요구에 일부물량 철도로 대체 ... 화물연대 반발 시위 이어져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삼남석유화학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일부 화물을 철도로 운송하자 화물연대가 반발하고 있다.

삼남석유화학에 따르면, 12월 중순부터 여수공장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 원료 가운데 일부를 철도를 이용해 경상북도 김천의 모 수요처로 운송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25톤 화물차 약 70대를 이용해 운송해왔는데 12월22일부터는 화물차 운송량을 3분의1 가량 줄이고 화물차 대체수단으로 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삼남석유화학 관계자는 “수요처가 <화물연대 파업>을 우려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철도 운송을 요구해왔다”며 “거래처의 입장을 도외시킬 수 없어 철도운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화물연대 관계자들은 삼남석유화학 및 여수시청 앞에서 “삼남석유화학의 철도운송 방침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2/24>